



정읍시, 전 직원 대상 반부패 청렴교육 진행

정읍시가 갑질과 부정청탁 없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시는 12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문양근 강사가 맡았다.

문 강사는 청탁금지법과 직장 내 부당행위 등 부패 방지 관련 법령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공직사회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 공직자가 지켜야 할 자세와 역할도 짚었다. 특히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소개하고 이에 대처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직원들은 다양한 사례를 살펴봄에 자신의 업무 태도와 조직문화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하수 시장은 "청렴도를 높이려면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외부적으로는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모든 직원이 갑질과 부정청탁 없는 청렴한 정읍시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소통·공감 청렴토론폰서트'와 즐거운 공무원 생활을 위한 월간공직기상 등 다양한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의 부패 대응 능력을 높이고 일상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장수소방서 여성이용소방대,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장수소방서는 12일 한국농업연수원에서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근로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취업 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낯선 타국에서 산업 현장에 투입될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주요 교육 내용은 △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대피 요령 △ 심폐소생술(CPR) △ 여름철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수칙 등이 다뤄졌다. 최근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를 감안해 현장 근로 시 발생하기 쉬운 열사병 예방과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대원들은 특유의 친근함과 세심함으로 언어 장벽을 훌쩍 뛰어넘었다. 눈높이에 맞춘 1대1 밀착 실습을 주도해 실질적인 위기 대처 능력 향상을 이끌어냈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시 도통동, 취약계층 위한 삼계탕 나눔 실천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8월 7일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등 100명에게 삼계탕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삼계탕을 전달하며 독거노인 가구의 가정환경을 점검하며 폭염 대비 안전 확인도 진행되었다.

도통동은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적극 발굴하고 현장 중심의 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파악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들을 도통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공유하며 협력하여 이번 삼계탕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다. 도통동행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복지 실현에 힘쓰겠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복지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경찰서, 이륜차 등 홍보·단속 실시

고창경찰서(서장 태기준)는 이달 10일부터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올해 전북 내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특히 이륜차 사망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많고, 고창 관내에서도 고령자 이륜차 사망사고가 발생했만큼 추가적인 발생을 막고 이륜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게 된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고령자의 안전미착용이 많아 이를 중심으로 단속과 함께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파티마신포, 서부시장 상생 행보 ‘앞장’

가액축제 지원금 200만원·친환경 생분해봉투 2만8천장 전달…전통시장 활성화와 ESG경영 실천

전주파티마신포가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주파티마신포(이사장 양춘제)는 지난 11일 전통시장 활성화 전라사업의 일환으로 서부시장상인회(회장 김계천)에 가액축제 지원금 200만원과 400만원 상당의 친환경 생분해봉투 2만8,000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경기장제와 소비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장 상인들의 영업환경 개선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장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비닐봉투를 친환경 생분해봉투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해 환경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도 힘을 보탰다.

이번에 전달한 친환경 생분해봉투는 모두 2만8,000장이다. 일반 비닐봉투 1장의 무게를 약 10g으로 가정할 경우 기존 비닐봉투 사용을 대체함으로써 약 280kg 규모의 플라스틱 사용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전주파티마신포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환경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ESG경영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전주파티마신포는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서부시장 가액축제를 지원하며 지역 대표 축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홍보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올해까지 가액축제 누적 지원금은 9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올해 생분해봉투 지원사업까지 새롭게 추진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환경보호를 결합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양춘제 이사장은 "서부시장은 오랜 시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해 온 소중한 생활 터전이자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지원이 상인들의 영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가액축제와 서부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도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주파티마신포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전통시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보호를 함께 실천하는 ESG경영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파티마신포는 지역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2020년부터 매해 지원을 시작으로 간판 교체, 시장 내 벤치 설치, 벽화마을 조성 등 시장 환경 개선과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서부시장 활성화와 지역 상권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은, 군산시에 여름나기 쿨키트 80상자 기탁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12일 전북은행(은행장 박준원)이 관내 저소득 세대를 위한 여름나기 쿨키트 80상자(4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 물품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이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쿨키트는 여름나기, 탁상용 선풍기, 보냉백, 팔토시 등 여름철 필수 생활용품 4종으로 알차게 구성됐으며, 관내 저소득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최종구 전북은행 부행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쿨키트가 지역 이웃들의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나기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의 마음을 다하여, 전북도민의 힘이 되는 전북은행이 되도록 전심전력(全心全力)으로 나눔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매년 잊지 않고 계절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전북은행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보내주시 쿨키트는 무더위에 취약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군산=김민호 기자



운암제일교회, 서울남서울교회 교인과 봉사 실시

운암제일교회(목사 원영수)는 서울남서울교회 교인 40명과 함께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운암면 복지회관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사랑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문화·복지 혜택이 부족한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복지회관에 모인 봉사단은 △미용 △침상 △영양사진 촬영 등 어르신들의 일상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저녁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만찬을 열었다.

원영수 목사는 "무더위에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준 서울남서울교회 교인들께 감사드리며, 주민들께서 큰 위로와 기쁨을 얻어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실=전종영 기자

남원시 죽향동, 취약계층 2가구에 에어컨 설치 지원

남원시 죽향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은주)는 폭염에 에어컨 없는 고령의 취약계층 2가구에 에어컨 설치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폭염에 취약한 고령 어르신들의 생활환경과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살핀 결과로, 냉방기기가 없어 무더위에 고스란히 노출된 가구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통합사례관리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지원 대상 중 한 가구는 85세의 초고령 독거노인으로, 무더운 날씨에 7월 남짓한 공간에서 폭염으로 인한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에어컨 설치에 대한 부담과 생활공간 노출에 대한 거부감으로 처음에는 설치를 결정하지 못했으나 매일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을 전한 결과 설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어르신은 "더운 날씨에 선풍기만으로는 밤잠을 이루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게 되어 정말 고맙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죽향동은 앞으로도 복지지원 연계 등을 통해 취약계층 안전을 지키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운봉읍 엄계마을, '분리배출 우수마을' 선정

남원시 환경과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재활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2026년 쓰레기 분리배출 우수마을 평가에서 운봉읍 엄계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됐다.

읍은 엄계마을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독려하기 위해 2026년 8월 11일 읍 이장회의에서 시상하며, 마을에 상장과 인센티브를 전달하고 주민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엄계마을 이장은 주민들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해 주 2회 이상 마을방문을 실시하고, 캠프·박스류 등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군산 금강노인복지관에 지역사랑성금 전달

금손할배's 장난감 클리닉 사업에 400만원 지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이 어르신들의 전문 기술을 활용한 지역사회 참여와 세대 간 소통을 지원하며 생산적인 사회공헌 모델 구축에 나섰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박춘원 은행장·정원호 노조위원장)은 12일 군산시 금강노인복지관에서 지역사랑성금 4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성금은 금강노인복지관이 제안한 '모든 세대의 애착 장난감을 고쳐주는 금손할배들의 장난감 치료소, 금손할배's 장난감 클리닉' 사업에 지원된다.

한편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지역사랑성금을 활용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총 6,000만원 규모의 2026년 지역사랑성금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했으며, 심사를 통해 모두 15개 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별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텃밭에서 딴 토마토, 피자로 변신’… ‘농심천심’ 특별한 한 끼

농협 순창군지부, 텃밭정원 수확·식체험 행사

다문화가정 초등생·순창가족센터 직원 등 참여

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신종철)는 지난 11일 군지부 주차장에 조성된 '농심천심 텃밭정원'에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군지부 및 순창가족센터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심천심 텃밭정원 수확 및 식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농산물을 수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수확한 농산물을 식재료로 활용해 음식을 만들고 함께 나누어 먹는 '팜투테이블(Farm to Table)' 체험으로 농업의 가치를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 어린이들은 먼저 농심천심 텃밭정원을 둘러보며 토마토, 바질, 참외, 옥수수 등 다양한 농작물을 직접 수확했다. 또한 텃밭에 조성된 수박 등의 농작물이 자라고, 백일홍 등 30여 종의 꽃이 피는 모습을 관찰했다.

어린이들은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방울토마토와 바질을 손질하고, 임실치즈농협의 모짜렐라 치즈를 더해 직접 피자 만드는 체험을 했다. 피자 도우에 토마토와 바질, 치즈 등을 직접 올리면서 자신이 수확한 농산물이 맛있는 음식으로 변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피자가 구워지는 동안에는 옥수수 껍질 벗기기 체험도 진행했다. 어린이들은 직접 옥수수 껍질을 벗기고 삶은 옥수수를 맛보면서 우리가 먹는 농산물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수확한 참외의 과육 색깔을 비교·관찰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어린이들은 일반참외와 멜론참외의 과육 색깔을 직접 비교하고 직접 수확한 참외를 맛보며 농산물



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이날의 마지막 순서는 직접 만든 피자와 옥수수, 참외 등을 함께 나누어 먹는 '농심천심 한 끼' 시간으로 진행됐다. 어린이들은 농협 직원과 가족센터 관계자 등 어른들과 함께 먹거리를 나누며 농산물 이름과 특징, 음식 이야기를 소재로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에게는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접 만지고 수확하고 요리해보는 경험을 통해 '우리 농업과 농산물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신종철 농협 순창군지부장은 "농업이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식탁과 일상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느꼈을 것"이라며,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농업을 매개로 서로 소통하고 농업·농촌의 가치와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농심천심 텃밭정원'을 열린 체험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26년 11월 28일 52(목)기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으)66312 전주시 우수구 771대도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8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95-4113	종로지사 010-9388-6574	남원지사 632-3386	임실지사 010-9842-2726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84
서산지사 272-9417	순창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385	정읍지사 538-3787
호주지사 010-6655-9955	팔복지사 253-6944	순창지사 633-0444	장수지사 010-3322-6157
	군산지사 010-6329-65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익산지사 658-9923	고창지사 553-6999	
*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